

[TV]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하지원 "슬픔이 담긴 코미디 영화예요"

임창정과 함께 달동네 주민들 이야기 다룬 '1번가의 기적'서 열연



최근 드라마 '황진이'를 마친 하지원이 영화 '1번가의 기적' (감독 윤재근, 제작 두사부필름)에서 여자 복서 명랑으로 등장한다.

하계 몸을 혹사시켰던 작품이 반응이 좋았죠. 처음엔 몸을 움직이고 뒤편 배우는 게 좋았어요. 얼굴로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말없이 웃음으로만 표현해도 관객이 이해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 오르고 싶더군요.

'1번가의 기적'은 재개봉로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달동네 1번가를 무대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시나리오에서, 지리도 못사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요행수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풀어가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캐릭터 하나하나가 펼쳐내는 따뜻한 웃음이 관객의 마음을 흐트라게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 때문에 윤 감독님을 믿어요. 슬프고 잔잔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도록 풀어간 점이, 진정성과 슬픔이 있는데 코

미드를 잃지 않았죠."

"(코치로 등장하는) 주현 선생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명랑이 되기 쉬웠어요. 아버지로 등장하는 정우홍 감독님은 제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걱정했는데 조화가 잘 이뤄진 듯해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등장인물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각자의 꿈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가장 좋다"고 말하며 "영화 완성본을 보고 감독님이 배역 하나 하나를 모두 살려낸 게 너무 신기했다"고 덧붙였다.

'황진이'는 "제가 참 많이 배운 작품이에요. 그분을 통해 제가 가진 재주를 사람들에게 보여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제가 가진 재주를 함께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인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배우도 마찬가지죠. 관객과 교감할 때 진정한 예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황진이'를 통해 연기자로서는 최대 영광인 연기대상을 수상한 그는 '황진이'가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한 작품이라며 뿌듯해했다.

Living TV Hollywood Hunt Club (후후 4시50분) - 뉴스거리를 사랑하는 할리우드의 사냥꾼 파파라치, 그들의 생활과 숨겨진 스타의 뒷 이야기, 파파라치들의 치열한 경쟁과 삶을 공개한다.

국제보청기 - 창업 25년,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31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SBS, E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